

2013년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방문 소감문

기독교교육학 201201047 정에스더

2013년 3월 5일

팀원 소개

2013년도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표로 존경하는 지도교수님 기독교교육학 장신근 교수님, 부회계와 간호로 따뜻하게 감싸주신 기교과 4학년 조은숙 선배님, 총무로 엄청 애써주신 기교과 4학년 이상호 선배님, 교통과 한사람 한 사람 잘 챙겨준 똑똑한 기교과 4학년 전은진 선배님, 부총무로 책임감있게 뒤에서 수고한 든든한 기교과 3학년 조현우선배님, 회계로 알뜰하게 잘 지낼수 있게 도와준 기교과 3학년 김은혜 선배님, 조교로 뜻밖에도 가게된 저 기교과 1학년 정에스더, 식사 일정을 정말 잘 해준 교음과 4학년 박지원 학우, 프랑스 일정을 세밀하게 잘 짜준 교음과 3학년 배성희 학우, 교통과 선물을 잘 준비해준 썬스쟁이 교음과 4학년 김윤희 학우, 숙소를 잘 알아봐준 귀요미 교음과 3학년 안지애 학우랑 같이 요크에서 7박 8일 동안 Bar Convent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일정 소개

월요일 1월 28일부터 2월 3일 주일과 2월 5일 화요일까지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에서 만들어준 스케줄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스케줄에 시간 변경과 프로그램 변경이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같았습니다.

Monday 28th January

14.47- Koreans arrive, met by Richard Noake
16.00- Tour of York and York St. John University with students
19.00- Arrival and welcome meal YSJU Dining room

Tuesday 29th January

09.30- Coach to pick up from York St. John University
15.30- Coach to leave Whitby

Wednesday 30th January

12.15- Chapel-Communion service (including lunch at 13.00)
13.30- Professor Sebastian Kim Lecture- World Christianity and the Public Engagement of Theology, room De Grey 014
15.30- Free Time

Thursday 31st January

08.30- Coach to pick up from York St. John
09.45- Arrive at Fountain Abbey Visitor Centre. Met by Richard Noake.

10.00- Coffee and dessert
10.15- Guided tour of the Abbey
Lunch at Fountains Abbey
13.45- Ripon Cathedral
14.15- Tour of Cathedral
16.00- Tea at Old Deanery Hotel
17.00- Sung Evensong at the Cathedral
18.20- Coach to leave to return to York

Friday 1st February

AM- Free Time
12.30- Lunch with the Dean at YSJU in the dining room
13.30- Tour of York Minster

Saturday 2nd February

14.00- Buy food for Dinner, preparing
16.00- Cook Korean food and cake baked by Jennifer and Polly
18.30- Eat Korean style Dinner in Bar Convent with Hannah, Jennifer, and Polly

Sunday 3rd February

10.00- Sung Eucharist (Common Worship)
12.00- Lunch
13.51- Depart York travel by Train East Coast
16.21- Arrive Edinburgh station, met by Rev. JunSoo Park
PM- Guide tour by Rev. JunSoo Park and arrive Hotel

Monday 4th February

AM-PM Following Edinburgh Schedule made by Rev. JunSoo Park
20.02- Depart Edinburgh
23.01- Arrive York

Tuesday 5th February

11.00- Prof Pauline Kollontai Lecture-'Teshuva: A Jewish Approach to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room Temple Wing 104
12.45- Lunch Dining room
13.30- Coach to pick up from York St. John to travel to Knaresborough
14.15- Arrive in Knaresborough, visit to the chapel, traditional Yorkshire tea shop
17.30- Return to York St. John
18.00- Farewell Meal

Wednesday 6th February

12.01- Depart York

요크에서의 자세한 일정 소개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서 그 날 당시에 피곤해서 일기를 못 썼지만 그래도 참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못쓰겠지만 그래도 일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에 오후 2시 47분에 설래 이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으로 요크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 내리면서 짐과 인원수를 확인하고 밖으로 가려고 이동했을 때에 여러 한국인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Richard Noake 교수님과 영국 학생들은 한 번에 알아보고 다가오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마침 환영의 비와 바람이 불어서 저희들이 지낼 숙소 Bar convent로 힘차게 이동했습니다. 걸어서 8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에 숙소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Bar Convent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녀님께서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Richard Noake 교수님의 환영인사와 수녀님의 인도로 각자 숙소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짐을 놓았습니다. 15분 뒤에 세 명의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영국 학생들 Matt Coward, Hannah Gregory, Polly Williamson 과 같이 요크 세인트 존 대학 가는 길에 있는 동네 마켓 거리를 보러 가는 중에 다리 밑에 비 때문에 홍수가 나서 물에 찬거리를 보면서 요번에 비가 아주 많이 왔다는 것을 완전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요크 세인트 존 학생들의 의견으로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 영국티를 마시는 팀과 동네 마켓과 거리를 둘러보는 팀으로 나누어서 카페에서 6시쯤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국티를 주문을 했더니 우유랑 설탕이랑 같이 나와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스타일로 우유랑 설탕을 안타고 마셨습니다. 오후 6시반쯤에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식당 방향으로 가면서 도서실도 들러서 Jennifer Hallows 도 만나고 잠시 소파에 쉬면서 구경도 하고, 화장실도 갔습니다. 화장실은 참 크고 깨끗하고 수도물도 자동이라서 좋았습니다. 도서실은 삼층까지 있는데 일층엔 15개정도 컴퓨터들이 진열 되어 있고, 복사기와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시쯤에 식당에 도착하니 깨끗하게 동그란 테이블 세팅이 되어있는 곳에 앉아서 Richard Noake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대표학생들과 같이 예기도 하고 vegetarian style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걸어서 다시 Bar Convent 숙소로 가서 팀원들 다 모여서 총무 이상효 선배님의 그 다음날 일정을 말해주는 것을 듣고, 아침에 짧게 말씀 나눔과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언급하고, 시간 잘 지키자는 것도 주의시키고, 교수님의 기도로 마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에는 오전 8시에 식당에 다 모여서 짧은 말씀 나눔과 기도를 하고 영국식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8시 15분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각자 숙소 방 이름을 확인을 하고 음식을 가지고 갈수 있게 했습니다. 음식들은 Yorkshire tea, 주스, 빵, 씨리얼과 우유, 바나나,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까지 걸어서 30분쯤에 버스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Whitby로 가는

버스는 문이 왼쪽 앞에 있었고,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버스라서 그런지 깨끗하고, 대략 25명이 탈수 있는 버스이었습니다. 자리가 많아서 널찍하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국 중간 동북쪽 끝 바다근처에 있는 Whitby로 갈수 있었습니다. 두시간 반 거리라서 Whitby에 가는 동안에 심심해서 마이크 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같이 간 Jennifer, Polly, 그리고 Hannah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Whitby에 도착해서 Richard Noake 교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진을 찍고 갈매기도 보았습니다. Richard Noake 교수님이 도착 하신 후 Whitby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Whitby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Fish and Chips"를 먹을거라고 예기해 주시고, 비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서 영국티를 기다리면서 처음엔 어색해서 Jennifer, Polly, 그리고 Hannah 랑 대화를 많이 안했는데, 한국 게임(후라이펜 놀이, 공공칠빵, 지로) 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 말 문이 트이고, Jennifer, Polly, 그리고 Hannah에게 한국 이름을 만들어주니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애, 지원, 윤희, 은혜에게 영문 이름을 만들어주고, 같이 영국게임을 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카페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으러 등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저녁으로 "Fish and Chips"를 먹고, Whitby에서 York로 돌아왔습니다. Bar Convent 숙소로 8시쯤에 도착해서 다음날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채플 실에서 특송 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Bar Convent 1층에 meet room이 있는데 피아노도 있고 반주 할 수 있는 교음과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특송 연습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곡은 이상호 선배님께서 고르셨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와 "주의 이름 높이며"를 연습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곡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곡이고, 또 "주의 이름 높이며"도 하나님을 높이는 곡이어서 뜻 깊었고, 조현우선배님과 이상호선배님의 목소리와 교음과 3학년 안지애 학우의 피아노 반주와 오르간 전공 교음과 김윤희 학우의 피아노 반주에 감탄하면서 즐겁게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은숙선배님의 마침기도로 연습을 끝내고 각자 숙소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1월 30일 수요일도 8시 15분에 짧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일찍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채플실에서 연습을 하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Lukas Njenga 목사님께서 장신근 교수님과 저희들을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고 장신근 교수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멋지게 소개를 하시고 난후 저희들이 준비한 특송을 불렀습니다.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신기했던 것은 주보를 따라서 같이 읽으면서 목사님과 화답하는 것과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모두 나가서 포도주가 든 컵과 포도주가 아닌 주스가 든 컵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돌아가면서 한 컵에 입을 대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깐 정말 예수님의 보혈과 살로서 종교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가 끝난 후 점심을 채플실 안에서 먹었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와 과일과 주스와

커피이었습니다. 교음과 안지에 학우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동안에 아름답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분이기도 너무 좋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난후 오후 1시 30분에 Sebastian Kim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들으니깐 반가웠습니다. Sebastian Kim 교수님은 인도에서 선교사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영국에 오셔서도 교수로 사역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에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질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학생 Jennifer, Polly, 그리고 Hannah가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들의 인도로 잘 이동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남은 시간은 쇼핑을 하거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각자 저녁을 먹고, 다 모여서 다음일정을 말하고, 각자 방에 가서 잤습니다.

1월 31일 목요일은 아침 일찍 나가야되어서 8시에 아침을 먹고 바로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버스 타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Fountain Abbey라는 곳에 가는데 대학교에서 1시간 41분정도 걸리고 중간 북서쪽에 Ripon Studley Park 근처에 위치에 있습니다. 9시 45분에 도착하여서 Richard Noake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Richard Noake 교수님은 Fountain Abbey에 있는 식당에서 티와 디저트를 사주었습니다. 티와 디저트를 먹은 후 Richard Noake 교수님은 Fountain Abbey 가이드를 해주실 David 목사님을 소개시켜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Fountain Abbey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리는 걸어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Fountain Abbey는 정말 크게 지었는데 성당은 지붕이 없고 벽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성당과 수도원 건물들이 Henry 8th King 때문에 파괴 되고 많은 수도원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권력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시 Fountain Abbey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별로 맛있진 않았지만 배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후 오후 1시 45분에 Ripon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일로 오래된 성당인 것을 나타내주는 창문과 성당 안에 있는 성가대실과 파이프 오르간과 구조와 높은 벽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투어를 다하고 오후 4시쯤에 티를 마시러 Old Deanery Hotel로 들어갔습니다. Old Deanery Hotel은 Ripon 성당과 가까이 있어서 7분 안에 걸어서 갈수 있었습니다. Old Deanery Hotel 구조는 참 신기했습니다. 호텔이기 보다는 모텔 같은데 알고 보니 예전에 이 건물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식당과 호텔로 이용하고 있다고 예기해 주었습니다. Old Deanery Hotel에서 Richard Noake의 아내와 시어머니와 아들들과 딸을 만났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같이 티를 마시며 예기하면서 즐겁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후 5시쯤에 저희들은 다시 요크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비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버스가 기사 아저씨께 부탁 드려서 숙소 앞에 까지 대려다 주셨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을 라면과 한국에서 싸가지고 온 김과 햇반을 먹고 쉬었다가 모여서 저녁 회의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인상 깊은 곳

요번 요크 여행 중에 제일로 인상 깊었던 곳은 Bar Convent 숙소입니다. Bar Convent 숙소는 수녀들이 숨어서 몰래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예전에 천주교를 핍박 하던 Henry 8th King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 하여서 그래서 예배 실은 건물 중간 안쪽에 있고, 갑작스러운 경찰들의 방문을 대피하기 위해서 구조를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방을 잘 못 찾도록 구석구석에 계단과 안쪽으로 방을 위치를 해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감춰져있는 건물 속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크 숙소에서는 서로 방이 많이 떨어져서 있고, 방을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조교라서 방한 칸을 혼자서 잤는데 편한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쓸쓸할 때도 있었고, 방이 너무 좋아서 부담이 된 것도 있었는데, 여러 요크팀 멤버들이 방에 찾아와줘서 이야기도 해주고 위로해주어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여행에서 제일로 기억 남고 감사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서로 챙겨주면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잘 버텨낸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서 성격 차이와 불편한 것이 생길 거라는 염려와 선입견이 있었는데 서로 여행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교음과 학우들과 기교과 선배님들과 친하게 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번 여행을 통해서 저 자신을 알아가게 되었고, 저의 영어 실력에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 일주일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번쯤 유럽여행에 다녀 온 것에 대한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수 있다는 것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대외협력실에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다음 요크세인트존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여름에 갈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